



국내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 및 수요에 대한 연구

박신애¹ · 이아영² · 이금주³ · 이왕록⁴ · 배승종⁵ · 박범진⁶ · 김대식^{7*}

¹건국대학교 보건환경과학과, ²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과학과, ³충남대학교 원예학과, ⁴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⁵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⁶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⁷충남대학교 지역환경토목학과

A Study of Awareness and Needs for Care Farming in South Korea

Sin Ae Park¹, A Young Lee², Geung Joo Lee³, Wang Lok Lee⁴, Seung Jong Bae⁵, Bum Jin Park⁶, and Dae Sik Kim^{7*}

¹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Konkuk University, Seoul 05029, South Korea

²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cience, Konkuk University, Seoul 05029, South Korea

³Department of Horticultural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South Korea

⁴Department of Sport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South Korea

⁵Research Institute of Green Bio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yeongchang 25354, South Korea

⁶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Forest Resour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South Korea

⁷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Rural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South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awareness and needs for care farming in South Korea. A questionnaire that includes 20 questions was developed for this study. The survey was answered by the 1,302 respondents who lived in the six cities such as Seoul, Incheon, Daejeon, Daegu, Ulsan, and Gwangju in the period of October 2016. The respondents who were aged over 20 years were recruited by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s the results, 50.4% and 40.1% of the respondents reported 'Know nothing' and 'Know of care farming', respectively. The experience for participating in care farming was low (29.0%). The purposes of participating in care farming reported as experience (31.4%), leisure (25.0%), and education (21.0%). Frequency of visiting for care farming complex was daily (44.3%) and 1 night 2days-3nights 4days (32.9%). Moreover, 67.7% of potential consumers had intention of paying the care farming fee. The acceptable fee reported as an average 11,339 won per day. In addition, needs for care farming complex was very high in the respondents with or without disease. The present study is anticipated to support the needs for care farming complex and provides reference data for administrators in care farming.

Key words : green care, healing agriculture, horticultural therapy, social farming

I. 서론

최근 농업은 생산위주의 농업과 관광농업을 넘어서 농업의 치유적 특성을 활용하는 새로운 트렌드인 치유농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이나 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신

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Gim et al., 2013). 즉,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활동'을 의미하는데, 치유농업은 식물 및 동물 등과 같은 다양한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치료, 재활, 교육,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다(Jung et al., 2016).

치유농업의 유형은 1) 치유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중심, 2) 사회적 약자에게 전문적 교육훈련제공을 통해 고용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고용 중심, 3)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를 위해 농업이나 농촌자원을 활용한 원예치유, 산림치유, 동물매개치유, 자연·야생치유, 에코테라피와 같은 다양한 농업활동들이 이루어진다(Di Iacovo and O'Connor, 2009;

Received on November 7, 2016. Revised on December 5, 2016.

Accepted on February 16, 2017.

*Corresponding author: drkds19@cnu.ac.kr

본 연구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녹색 농업치유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된 결과의 일부임.

Haubenhofer et al., 2010).

치유농업은 이미 유럽의 농업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어 왔으며, 치유 목적을 위해 농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대상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 뿐 만 아니라 직업재활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범위가 넓고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와 같은 치유농업 선진국들에서는 국가별로 치유농업의 개념 및 영역, 정책지원 등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실제로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Gim et al., 2013).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치유농장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현재 1,100개 이상이며, 연간 약 20,000명이 치유농장을 이용하고 있다(Hassink, 2010). 일시적 질병을 가진 환자들 뿐 만 아니라 휴양의 목적으로 치유농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ung et al., 2016).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최근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와 국민들의 인식 및 요구,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지원방안 등과 관련된 기초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치유농업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정보로써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수요에 대해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설문조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1개의 특별시(서울특별시)와 5개의 광역시(울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에 거주하는 자들 총 130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10월에 총 12일간 실시되었다. 백화점, 대학병원, 복지관, 성당, 교회 등 인파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조사원들이 개별 또는 단체로 접촉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완료 시에는 미리 준비한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 설문지 구성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 및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서 총 20문항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치유농업의 인식 및 경험유무에 대한 질문 총 2문항, 치유농업단지에 대한 필요성 및 참여의사와 이용형태에 대한 질문 총 5문항, 치유농업단지에 대한 지불의사에 관한 질문 총 4문항,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문항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설문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프로그램(version 22.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설문지의 각 수집항목에 대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질환에 따른 치유농업의 인식 및 요구를 비교하기 위하여, $p < 0.05$ 을 기준으로 Chi square test와 Independent sample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인구통계학적 정보

본 연구의 설문응답에 참여한 총 1302명 중 여성응답자가 67.1%로 남성 응답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연령은 30-60세인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학사 졸업자가 90%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응답자 중 66%가 기혼상태였으며, 전업주부나 사무직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수입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의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1%이상의 응답자가 만성질환 등이 없는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 및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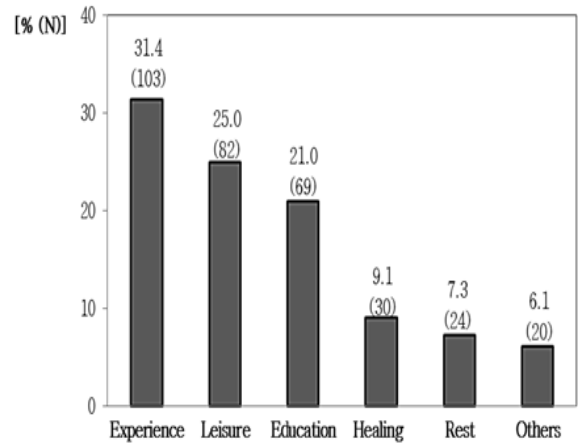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총 1262명), 치유농업에 대해 ‘전혀 모른다’가 54%(681명), ‘조금 알고 있다’가 40.1%(506명), ‘많이 알고 있다’가 5.9%(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유농업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라고 응답한 자 581명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에 대해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대중매체 63.4%(341명), 농업 관련 행사 12.3%(66명), 농업농촌 관련 기관 14.9%(80명), 그 외 9.5%(51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치유농업에 참여해 본 경험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총 1217명), 71%(857명)이 ‘없다’로, 29%(350명)가 ‘있다’라고 응답해 치유농업에 대한 참여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유농업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자에게 치유농업에 참여하게 되었던 이유를 조사한 결과, ‘체험’의 목적이 31.4%, ‘여가’ 25%, ‘교육’ 21%, ‘치유’ 9.1%, ‘휴양’ 7.3%, ‘기타’ 6.1%인 것으로, 체험과 여가 및 교육 목적으로의 이용 경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1). 또한 치유농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에게 치유농업에 재참여 의사를 조사한 결과, 치유농업에 다시 참여해 볼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자가 69.3%(490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이 추구해야 하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N=1302).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le	425	32.9
	Female	865	67.1
Age	Below 20 years old	40	3.1
	21 to 30 years old	187	14.5
	31 to 40 years old	293	22.7
	41 to 50 years old	318	24.7
	51 to 60 years old	267	20.7
	Over 61 years old	184	14.3
Residential area	Seoul	170	13.2
	Busan	23	1.8
	Daegu	186	14.5
	Daejeon	270	21.0
	Gwangju	178	13.8
	Incheon	148	11.5
	Ulsan	142	11.0
	Chungbuk	5	0.4
	Chungnam	14	1.1
	Gangwon	4	0.3
	Gyeonggi	75	5.8
	Gyeongbuk	22	1.7
	Gyeongnam	22	1.7
	Jeju	1	0.1
	Jeonbuk	3	0.2
	Jeonnam	24	1.9
Education	Uneducated	11	0.9
	Elementary school graduate	32	2.5
	Middle school graduate	60	4.7
	High school graduate	383	29.8
	University graduate	715	55.6
	Graduate school graduate	86	6.7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345	26.8
	Married	848	66.0
	Widowed	54	4.2
	Divorced	30	2.3
	Separated	8	0.6
Occupation	Housewife	256	20.0
	Office job	249	19.4
	Profession	207	16.2
	Technical work	90	7.0
	Teaching profession	88	6.9
	Student	74	5.8
	Public official	59	4.6
	Retired	50	3.9
	Unemployed	70	5.5
	Others	138	10.8
Monthly income	Less than 1,000,000 won	84	6.6
	1,000,000 to 1,999,999 won	236	18.6
	2,000,000 to 2,999,999 won	237	18.6
	3,000,000 to 3,999,999 won	232	18.3
	4,000,000 to 4,999,999 won	209	16.4
	5,000,000 to 5,999,999 won	119	9.4
	6,000,000 to 6,999,999 won	58	4.6
	More than 7,000,000 won	96	7.6
Health condition	Without disease	830	71.1
	Chronic patient	210	18.0
	In-patient	13	1.1
	Out-patient	98	8.4
	Others	16	1.4

**Fig. 1.** Reasons for participation in care farming (N=328).

는 목적을 조사한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이 1순위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치유 및 사회적 재활에 대한 목적이 2, 3순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Gim et al., 2013).

한편 네덜란드의 치유농업 현장에서는 치유농업을 주로 정신질환자의 재활(37%)을 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assink et al., 2007). 영국의 치유농업 현장에서는 치유농업을 주로 학습장애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기초학습능력개발(87%), 직업기술(70%), 사회적 기술(65%)의 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ine et al., 2008).

3. 치유농업단지에 대한 요구 및 이용형태

치유농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사를 조사해 본 결과, ‘필요 있다’로 응답한 자가 89.3%(1150명)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유농업단지가 조성된다면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사를 조사한 결과, ‘체험’목적이 24.6%(296명), ‘여가’ 24.1%(291명), ‘휴양’ 22.1%(266명), ‘치유’ 21.3%(257명), ‘교육’ 6.1%(74명), ‘기타’ 1.7%(21명)인 것으로 체험, 여가, 휴양, 치유의 목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유농업단지가 조성된다면 함께 이용하고 싶은 대상을 조사한 결과, ‘가족’ 63.1%(790명)과 함께,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13.7%(171명), ‘혼자’ 10.9%(136명), ‘부양하고 있는 가족환자’와 함께 7.5%(94명), ‘치유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타인’과 함께 3.6%(45명), ‘기타’ 1.3%(16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치유농업단지가 조성된다면 일 년에 총 몇 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연 2회(27.4%, 347명)를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1회 이용은 16.5%(209명), 연 3회는 12%(152명), 연 4회는 16.6%(210명), 연 5회는 12%(152명), 기타 15.5%(196명)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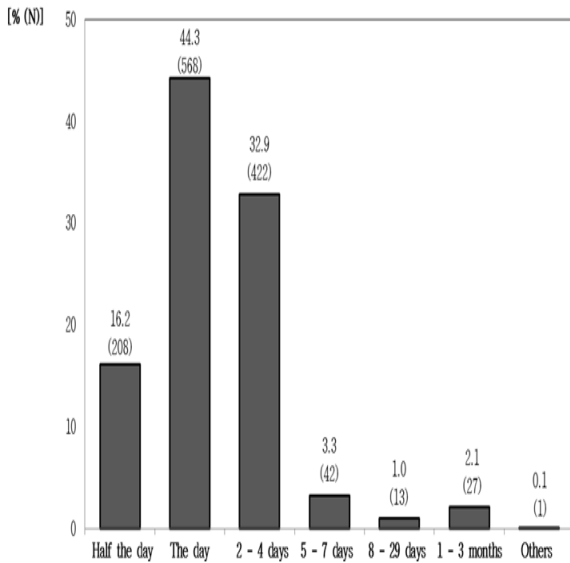


Fig. 2. Results of preference for visiting frequency to care farming complexes (N=1281).

한편, 치유농업단지를 1회 이용 시 이용기간에 대한 응답으로는 ‘당일 이용’이 44.3%로 가장 높았으며, ‘1박2일-3박4일’이 32.9%, ‘반나절 이하’가 16.2%, ‘4박5일-6박7일’이 3.3%, ‘한 달 이상-3개월 이하’가 2.1%, ‘7일 이상-한 달 이하’가 1%, ‘기타’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영국의 치유농업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당일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 이용시간은 6-8시간으로 조사되었다(Hine et al., 2008). 또한 거주가 가능한 치유농장은 전체 치유농장(총 72개소)의 33%정도(25개소)에 불과했고, 거주 기간은 4박5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Hine et al., 2008).

4. 치유농업단지에 대한 이용료 지불의사

치유농업단지의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11,339원(±11,050원, 최소 500원, 최대 100,000원)을 1회 이용료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의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치유농업단지에 지불할 의사를 조사한 결과, 뇌졸중 증상의 완화를 위해 치유농업단지 이용에 대한 지불의향은 평균 66,880원(±154,811원, 최소 500원, 최대 1,500,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는 자녀를 위해 치유농업단지의 이용료를 지불할 경우, 평균 16,333원(±118,213원, 최소 500원, 최대 200,000원)을 지불할 의향을 나타냈다. 번아웃증후군의 회복을 위해 치유농업단지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할 의향을 조사한 결과, 16,290원(±18,473원, 최소 500원, 최대 20,000원)으로 응답하였다.

Lee(2013)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치유농업에 참여할 의사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08명(76.5%)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또한 치유농업 참여에 따른 지불금액은 주당 평균 160,000원으로 조사되었다.

네덜란드 치유농업의 경우, 치유농장은 60%이상이 국가 지원금 및 기타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치유농장의 이용료는 활동보조 지원금에서 60%[평균 77유로(€)], 국가의료보험에서 20%[평균 55유로(€)]정도가 지원되어지며, 이용자의 실제 부담액은 전체 이용료의 20%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Hassink et al., 2007). 벨기에 치유농업의 경우, 국가에서 치유농장 이용자 최대 3인을 기준으로, 하루에 40유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oris and Weckhuysen, 2007). 영국 치유농업의 경우, 치유농장의 이용료는 대상자, 이용일수, 그룹, 농장시설에 따라 지불금액에 차이를 보였다. 이용료는 1일 이용 기준, 무료에서 100파운드(£)사이였으며, 가장 보편적인 지불금액은 30파운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영국 치유농장의 이용료는 자선단체(49%)와 지방자치단체(33%)에서 주로 지원·보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ine et al., 2008).

국내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전략을 조사한 결과, 치유농업 전담 조직 구축 및 치유시설 확대(40.4%), 치유농업 관련법과 예산 차원의 전략(18.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Gim, 2013). 따라서 국내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조직 구성 및 예산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외 사례와 같이, 국가차원에서 치유농업에 대한 조직적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5. 질환유무에 따른 치유농업단지에 대한 인식 및 요구조사

응답자의 질환유무에 따른 치유농업단지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차이를 조사한 결과, 질환자의 치유농업단지에 대한 인식이 무질환자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무질환자의 경우 치유농업에 대해 ‘전혀 모른다’가 471명(57.9%), ‘조금 알고 있다’가 311명(38.2%), ‘많이 알고 있다’가 32명(3.9%)이었고, 질환자의 경우 ‘전혀 모른다’가 143명(45.8%), ‘조금 알고 있다’가 143(45.8%), ‘많이 알고 있다’가 26명(8.3%)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치유농업에 대한 참여의사를 조사한 결과, 질환자의 치유농업에 대한 참여 의사가 무질환자의 참여 의사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무질환자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311명(64.7%)이, 질환자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126명(77.3%)이 치유농업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Awareness and needs for care farming according to the types of health condition (n=1152).

Variable	Without disease (n=831)	With disease (n=321) ^z	Signifi- cance ^y
N (%)			
Awareness of care farming			
Know a lot	32 (3.9)	26 (8.3)	0.000 ^{***}
Know slightly	311 (38.2)	143 (45.8)	
Know nothing	471 (57.9)	143 (45.8)	
Participative decision			
Yes	311 (64.7)	126 (77.3)	0.003 ^{**}
No	170 (35.3)	37 (22.7)	
Need for care farming complexes			
Necessary	740 (89.5)	285 (89.9)	0.833 ^{NS}
Unnecessary	87 (10.5)	32 (10.1)	
Purpose of use			
Experience	199 (25.7)	73 (24.4)	0.000 ^{***}
Leisure	207 (26.8)	58 (19.4)	
Rest	181 (23.4)	55 (18.4)	
Healing	122 (15.8)	93 (31.1)	
Education	54 (7.0)	13 (4.3)	
Others	10 (1.3)	7 (2.3)	
Mean (SD)			
Number of visits per year (days)	3.1 (1.7)	3.4 (1.7)	0.013 [*]

^zChronic patient, inpatient, and outpatient were combined.^yChi-square test was used to compare response of item among groups, with $p < 0.05$ consider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ependent sample t-test was used to compare means at $p < 0.05$ for number of visits.

치유농업단지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질환자와 질환자, 두 집단 모두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치유농업단지조성이 ‘필요 있다’라고 응답자가 무질환자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11명(89.5%), 질환자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285명(89.9%)으로 유사한 응답율을 보였다. 한편, 치유농업단지의 이용목적은 무질환자의 경우 ‘여가’목적이 207명(26.8%)으로 가장 많았고, ‘체험’ 199명(25.7%), ‘휴양’ 181명(23.4%) 순이었다. 질환자의 경우에는 ‘치유’목적이 93명(31.1%)으로 가장 많았고, ‘체험’ 73명(24.4%), ‘여가’ 58명(19.4%) 순으로, 두 집단의 치유농업단지 이용목적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01$).

치유농업단지를 1회 이용 시 이용기간은 무질환자의 경우 평균 3.1일, 질환자의 경우 평균 3.4일로, 질환자가 무질환자에 비

해 치유농업단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3$).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에 관한 이전 연구인 Hassink et al.(2010)에서는 치유헌동 대상에 따라 치유농업의 이용형태 및 요구도가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보호청소년은 주로 사회적 역할 학습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분리를 위하여 전일제 보호 형태로, 쇠약노인은 사회적 고립 해결 및 요양을 위하여, 치유농업에 주 3회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신질환자는 주로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치유농장을 최대 20일 숙박형태로, 장기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국민들의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 희망 의사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까지는 치유농업이 주로 체험, 여가, 교육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체험과 여가의 목적 뿐 아니라 휴양과 치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았다. 또한 치유농업 이용 시 당일 이용 및 1박2일-3박4일의 이용형태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료 지불 의사에 대한 조사에서는 질환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일반인의 경우보다 지불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국내 치유농업 정착을 위해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국내 실정에 맞는 치유농업 운영 형태, 정책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IV. 적요

본 연구는 국내 치유농업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치유농업에 대한 참여의사와 가치추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조사를 위해서 총 20문항의 설문지 개발되었다: 치유농업의 인식 및 경험 유무(2문항), 치유농업단지에 대한 필요성 및 참여의사, 이용형태(5문항), 치유농업단지에 대한 지불의사(4문항), 인구통계학적 정보(9문항). 설문조사는 2015년 10월, 1개의 특별시(서울)와 5개의 광역시(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에 설문조사요원을 파견하여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20대 이상 성인으로, 표본 집단은 편의표집방법을 통해 모집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총 130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치유농업단지에 대한 인식 및 참여의사를 분석해 본 결과, 치유농업에 대해 ‘전혀 모른다’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4.0%, 40.1%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유농업에 대한 참여 경험은 29.0%로 비교적 낮았으며, 주로 체험(31.4%), 여가(25.0%), 교육(21.0%)의 목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잠재수요자의 89.3%가 치유농업단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용 목적은 체험(24.6%), 여가(24.1%), 휴양(22.1%) 순으로 나타났으며, 치유농업단지의 기대

되는 연간 이용횟수는 년 2회(27.4%)였고, 이용기간은 당일 체험형(44.3%)과 1박2일-3박4일 숙박형(32.9%)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수요자의 67.7%가 치유농업단지에 대한 이용료 지불의사가 있었고, 1일 지불가능 이용료는 평균 11,339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유농업단지조성의 필요성은 질환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무질환자: 89.5%, 질환자: 89.9%). 치유농업단지의 주요 이용목적은 무질환자는 여가(26.8%), 질환자는 치유(31.1%)로, 질환유무에 따라 이용 목적은 차이를 보였다. 치유농업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국내치유농업단지 조성 시 그 필요성을 지지해주며, 운영형태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V. References

- Di Iacovo, F. and D. O'Connor. 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Press Service srl, Sesto Fiorentino, Italy.
- Gim, G.M. 2013. Strategic long term planning of green care based on agro-healing survey. National Institute Horticultural Herbal Science (NIHHS), Wanju, Korea.
- Gim, G.M., J. Moon, S.J. Jeong, and S.M. Lee. 2013. Analysis on the pres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agro-healing in Korea. J. Agric. Extension Community Dev. 20:909-936.
- Goris, K. and H. Weckhuysen. 2007. Green care in Flanders. Presentation for Farming For Health CoP, Gent, Belgium.
- Haubenhof, D.K., M. Elings, J. Hassink, and R.E. Hine. 2010. The development of green care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Explore: J. Science Healing* 6:106-111.
- Hassink, J. 2010. Care farms/social farming/green care: a Netherlands perspective. 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 Hassink, J., C. Zwartbol, H.J. Agricola, M. Elings, and J.T.N.M. Thissen. 2007. Current status and potential of care farms in the Netherlands. *NJAS-Wageningen J. Life Sciences* 55:21-36.
- Hassink, J., M. Elings, M. Zweekhorst, N. van den Nieuwenhuizen, and A. Smit. 2010. Care farms in the Netherlands: attractive empowerment-oriented and strengths-based practices in the community. *Health Place* 16:423-430.
- Hine, R., J. Peacock, and J.N. Pretty. 2008. Care farming in the UK: evidence and opportunities. Report for the National Care Farmin Initiative (UK), Essex Univ., Essex, UK.
- Jung, S.J., J. Hassink, K.M. Gim, E.H. Yoo, Y.A. Jang, S.M. Lee, and D.K. Park. 2016. Understanding of agro-healing (care farming).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Lee, S.W. 2013. International survey of green care i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of strategy in domestic. Report for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Yuhun Univ., Bucheon, Korea.